DOI: https://doi.org/10.28977/jbtr.2009.4.24.180

기호간 번역과 성서 번역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서 번역의 다양한 방법론 모색-

양재훈*

1. 번역인가 각색인가?

얼마 전 나는 외국에서 번역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석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번역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나는 그 학생에게 성서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는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각색'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번역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학생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 자연스럽고 편한 이야기 자리였기에 학문적으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석에서 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보여준다.

번역은 광범위하게 그 개념을 살펴본다면 어떤 영역의 텍스트를 다른 영역의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동등성(equivalence)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어떤 영역',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텍스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환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규정해야 하며,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번역이라는 작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먼저, 번역이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라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영역'이라는 개념이 고전적인 번역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저 언어적 차원에 머물렀었다. 즉, 영어에서 한국어, 독일어에서 영어 등과 같이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번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캣포드(J. C. Catford)가 말하듯이, 번역을 어떤 언어(Source Language/원천 언어)로 된 텍스트 자료를 동등성을 이루는 다른 언어(Target Language/대상 언어)의 텍스트 자료로 대체하는 것[1]으로 보는 시각이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1) J. C. Catford,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둘째로 '텍스트'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라고 했을 때 전통적 번역 작업에서는 어떤 언어 체계에서 사용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즉, 영어로 쓴 문자 텍스트를 불어로 된 문자 텍스트로 옮기는 것,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전환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번역이라는 개념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전환하는' 작업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며,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개념들이 다시 논의가 된다. 먼저 '어떤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영어, 불어, 한국어 등과 같은 언어적 차원으로만 한정지을 것인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번역학 자체에서도 스넬-혼비(Snell-Hornby) 같은 학자처럼 캣포드의 언어적 차원의 행위(linguistic excercise)로 번역을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보다 넓은 문화적[2] 컨텍스트의 차원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목소리도 있었다.[3] 하지만 스넬-혼비의 이해 역시 언어적 차원에 집중한 것이며, 그녀가 말하는 '문화'라는 개념도 여전히 '어떤 영역'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 안에 있다. 도리어 이러한 틀을 벗어난 것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다. 야콥슨은 언어 내적 번역(intra-lingual), 언어간 번역(inter-lingual), 그리고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등 세 가지 종류의 번역을 말하는데,[4] 일반적으로 흔히 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어 간 번역이고, 언어 내적 번역과 기호간 번역은 번역이라는 일반적 개념과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언어 내적 번역과 기호간 번역

그러나 언어 내적 번역과 기호간 번역을 광의적 개념에서 번역의 행위로 보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어 내적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표현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표현으로 풀어 쓰는 것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20.

2) 혼비가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예술적 작품 등과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

3) Mary Snell-Hornby,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Philadelphia: J. Benjamins, 1995[1988]), 56.

4) Roman Jakobso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

(paraphrasing)을 뜻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영역'이라는 범위를 보다 확장해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번역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동등성(equivalence)인데, 원천 언어(SL)와 대상 언어(TL/CL; consumer language) 사이의 의미 동등/동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번역 작업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작업은 원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개인과 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개인 사이에 메시지 이해에 있어서 동등성이 성립되지 않는, 즉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언어 내적 번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는 것이 상이한 언어 체계(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등과 같은) 뿐만 아니라 동질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대표적 예가 세대 간 언어 차이이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종종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했삼?, …했3?(=…했습니까?)', '설(=서울)', '추카, 추카(=축하합니다)', '강추/비추(강력히 추천 한다/추천하지 않는다)', '안습(=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뭥미?(=무엇입니까?)', '방가(=반가워)'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비속어에 해당된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텍스트 문자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5]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외계어, 비속어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은 이러한 것으로 서로의 유대감을 결속하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이들의 언어를 배우든지 위에서 내가 괄호 안에 풀어 준 것처럼 '번역'이 필요하다.

동질 언어권 안에서 번역(intra-lingual) 문제는 한국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매우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에서 적어도 30대 이내의 세대들은 옛날에 번역이 된『개역』(1961)을 읽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표준』(1993)이라든지『공동』(1977),『새번역』(2004) 등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의 성경 독자들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개념과 어구들, 더 나아가서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6] 동질 언어권 안에서 의미의

5) 예를 들면 'ㅋㅋㅋ(=웃는 소리)', 'ㅎㅎㅎ(='하하하''호호호'의 의성어)', 'ㅠㅠ(=울고 있다)', 'ㅋㄷㅋㄷ(=키득키득)' 등이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모티콘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것들의 예와 이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최웅환, "미디어 시대, 문자문화의 반란", 김영순 (편),『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서울: 논형, 2004), 147-177을 보라.

6)『개역』에서 사용하는 난해한 용어의 예를 들면, 궤휼(=왜곡된 말), 대저(=무릇), 간칭(=저울), 갖옷(=털옷, 털투성이), 거제(표준=헌납물), 겨리(=쌍), 경도(=월경), 궁창(=창공), 난류(=불량배, 건달), 노복(=종), 대노(=크게 노함), 대연(=큰잔치), 대작(=몰아치다), 방백(=귀한 이들), 목백(=통치자, 고관), 무저갱(=지옥), 바디(=씨줄), 바리(=그릇), 반구(=산/집비둘기), 반차(=계통, 서열), 반열(=조), 발행하다(=떠나다), 배약(=언약을 어김), 사곡(=속이는 말), 사관(=여관), 색점(=

동등성, 혹은 역동적 동등성을[7] 이루기 위한 작업을 단순히 풀어쓰기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번역의 영역으로 본다면, 우리는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영역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번역에 있어서 소비자(consumer)[8] 중심의 번역 즉, 번역의 수용성이라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언어 내적 번역이 '어떤 영역'에 대한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다면, 야콥슨이 말하는 기호간 번역은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문제와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된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데 텍스트라는 것이 언어의 기호적 (예를 들면, a, b, c, d…라든지 한글의 ㄱ, ㄴ, ㄷ, ㅏ, ㅑ, ㅓ… 등) 조합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형성하는 일련의 코드들을 나열한 것(즉, 단어나 문장)이라는 것으로 한정짓기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적 세계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 따라서 야콥슨의 기호간 번역은 이러한 현대적 세계에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언어적 기호(알파벳, 한글 등)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시각적 기호 혹은 글자 이미지(sign, *semeion*)이다. 고대 이집트어나 한자의 경우 상형문자에서 원천하였고, 이것은 그림과 언어적 기호가 얼마나 긴밀한 사이였는지 보여준다. 언어적 기호와 그림 이미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개인적인 예가 있다. 내 조카가 막 한글을 깨치던 다섯 살 즈음의 일이다. 조카는 여러 한글 단어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에게 사과라는 글씨를 보여주며 읽게 했더니

얼룩, 점), 시랑(=승냥이), 당아(=펠리컨), 신낭(=고환), 연락(=향락), 염습(=시신을 거두어줌), 예조(=징조), 오예물(=오물), 우거(=살다), 차서(=나이순서), 착심(=마음에 간직함), 채급(=빌려줌), 척량(=재다), 철롱(=철창), 취리(=돈놀이), 치석(=돌을 다듬다), 칭량(=셈하다), 하감(=굽어보다), 한재(=가뭄), 행음(=음행), 향리(=변두리 촌락), 현황(=넋을 잃다), 형극(=가시덤불), 효용(=용맹스러운), 효유(=연설하다), 후사(=상속자), 훼파(=무너뜨리다), 흉패(=가슴받이), 흔연(=기쁘게), 힐문(=비판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개역』성경 이후 출간된 대부분의 성경에서 괄호 안에 넣은 단어들과 같이 보다 쉬운 용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헌물, 애통, 권능, 칭송, 등경, 긍휼, 송사, 다림줄, 영존 등의 어려운 용어들이 여전히 2004년도에 출간된『새번역』성경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다. 다행히『새번역』등과 같은 몇 몇 성경들은 부록이나 난외주를 통해 용어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7) 나이다(E. A. Nida)의 경우 단순히 의미의 동등성을 넘어서SL이 그 원래 청중들에게 주었던 효과를 TL의 청중들에게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주는 역동적인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주장한다(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8) 나이다의 경우 수용자의 입장을 강화하여 대상 언어(target language)라는 용어 대신에 수용 언어(receptor languag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ibid). 그러나 수용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뿐 그 이상의 위치에 놓이지 않는 수동적 입장에 놓여있음을 내표한다. 그러나 번역된 텍스트를 접하는 개인/집단은 그 텍스트를 접할 때 원저자, 번역자와 더불어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를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나는 생각하여 수용자(receptor)라는 표현 대신에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사과'라고 잘 읽었다. 그 아이는 '호박'이라는 단어도 아무런 무리 없이 읽었다. 그런데 두 글자에서 각각 한자씩 가져와서 '박사'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여주며 읽도록 시켰더니 전혀 읽지를 못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단어를 언어적 기호의 조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그림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번역 행위에 있어서 텍스트라는 것을 단순히 언어적 기호 조합의 결과물로만 한정지어 볼 수 없다. 텍스트라는 것이 의미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적 수단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다. 언어적 기호 조합으로서의 언어 텍스트를 벗어나서 우리가 보다 넓은 의미의 언어 텍스트로 사용하는 가장 실질적인 사례는 몸짓 언어(body language, gesture)이다. 나이다가 표현하듯이, "손가락으로 목을 그으며 '우리가 얼마나 두목을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두목이 돼졌으면' 하는 의미를 뜻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라는 매개체가 강력한 의미 전달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9]

양재훈이 지적한 바, 영어 단어 'Hour'를 사전에서 A 카테고리가 아닌 H 카테고리에 넣는 것은 문자 텍스트에서 조차 시각적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10] 이러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 디모데후서4:2 성경 본문의 대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궁서체(폰트11)	휴먼 편지체(폰트 10)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같은 본문을 다른 글씨체로, 또한 각각 다른 효과를 주어서 쓴 것이다. 왼편의 궁서체 글씨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말이 매우 엄중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사명과도 같이 느껴지도록 만든다. 게다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굵은 글씨체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위엄과 강조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오른편에 휴먼 편지체로 쓴 본문은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은 엄숙하거나 부담스러운 무게감보다는 매우 가볍고 편안한 분위

9) Nida, 『언어간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송태효 역(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16.

10)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46-171[147]. 또한 이와 같은 예로서 성경본문 해석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에 대한 것을 보려면 Jayhoon Yang, Sung Baek, "Orality and Textuality in the Biblical Narrative and its Application to Bible Teaching",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 (2005), 159-189를 보라.

기의 말로 다가온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친구 사이의 부탁처럼 들린다. 끝에 첨가한 이모티콘은 이러한 어조를 더욱 부각시킨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크게 하고 붉은색으로 칠했을 경우 강조점이 말씀을 전하는 행위보다는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한다는 시간적 의미로 옮겨진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우리는 번역 행위에 있어서 '텍스트'라는 개념을 단순히 문자 언어적 기호 조합물이라는 것을 넘어서 몸짓 언어, 수화, 그림 이미지, 청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시켜야 한다. 의미에 변화/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처럼 확대되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야콥슨이 제시한 바, 기호간 번역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셋째로, 번역에 있어서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번역 행위에 있어서 전환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상응하는 혹은 동등성을 이루는 다른 언어 체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번역자의 입장을 상당히 등한시한 이해이다. 번역에 있어서 '전환 한다'는 것을 단순히 옮기는 행위로 본다면 번역자의 기능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그러나 과연 번역자의 역할이 그러한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위의 디모데후서의 예에서 보듯이 번역자는 상당히 능동적인 존재이다. 같은 TL의 단어 혹은 문장이라도 번역자는 다르게 '선택하여' 옮길 수 있다. 박용삼은 한국어의 '나무'가 독일어에서 각각 'Baum', 'Holz', 'Feuerholz'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저 산의 나무는 푸르다"라고 할 때 번역자는 'Baum'을, "이 책상은 나무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Holz'를, "머슴이 나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Feuerholz'를 선택할 수 있다.[11]

이와 같이 가장 적절한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번역자는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적절한 의미의 상응과는 상관없이번역자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의도 혹은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단어 및 문장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laborers' demonstration이라는 구절을 '근로자들의 시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번역에 대한 의미나 어감 등은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번역행위에 있어서 '전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옮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능동적인 창조적 행위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이다의 번역 모델이다. 나이다가 제시하는 번역의 과정 가운데는 분석과 재구성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번역자는 각각 해석자와 저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분석을 할 때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TL로 전환하는 재구성의 단계에서 나름대로 선택과 삭제 등과 같은 제2의 저자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

---

11) 박용삼, 『번역학 - 역사와 이론』(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3), 316-319.

3. 성경 번역과 문화

이상과 같이 나는 번역이라는 것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한 틀에서 새롭게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제 번역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과제를 접하게 되는데, 문화적 산물을 통한 번역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 번역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둘째,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들을 제시할 것인가? 셋째, 이러한 번역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 번역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로버트 하지슨(R. Hodgson)이 이미 그 가능성의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한 바 있다.[12] 그는 건축, 벽화, 조각품, 성경 삽화, 퀼트 작품 등과 같은 고대 종교 미술 작품들, 발레와 탈춤 등을 예를 들어가며 이것들이 일종의 성경 번역의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하지슨이 제안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 번역의 양상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4. 음악과 성경 번역: 바흐의 수난곡

야콥슨의 기호간 번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음악은 성경 번역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바흐의 마태 수난곡과 요한 수난곡을 들 수 있다. 마태 수난곡(1727, BWV 244)과 요한 수난곡(1722, BWV 245)은 성경을 음악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 마태복음 26장 1절 - 27장 66절과 요한복음 18장 1절 - 19장 42절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흐가 성경 텍스트를 옮겨놓은 것이 아닌,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원문 텍스트를 해석하고 음악적 표현과 자신의 문자 텍스트로 재창조하여 번역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는 두 복음서 텍스트의 음악적 번역에 있어서 각각 68개의 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곡은 배역들의 음역 배치도 다르고 편성도 다르다. 음역의 배치, 템포, 박자, 조, 배역 편성 등에 따라 곡 해석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때 바흐의 수난곡들은 원본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의 선택 또한 이러한 번역과 관련이 있다. 마태수난곡의 예를 들면, 총 68

12) 하지슨,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성경의 번역과 전달", 「성경원문연구」 15 (2004), 154-243.

개의 곡 가운데서 27개의 곡만 마태복음 텍스트를 인용하고 나머지 41개 곡에서 마태복음 텍스트를 벗어나 만들었다. 특히 아리아와 코랄 부분에서 마태복음 텍스트를 벗어났고, 자유가사는 프리드리히 헨리치(Friedrich Henrici, 1700-1764)의 것으로 코랄 가사에서는 바흐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랄에는 바흐 자신의 신앙적 견해나 고백과 깊이 관련된 것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13] 바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코랄 텍스트를 원본 텍스트를 사용한 곡들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나름대로 원본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4]

5. 음악적 공연과 성서 번역: 박동진의 『예수전』(1972)

음악을 통한 성경 번역의 좋은 예로서 그동안 소외당했던 영역이 있다면 바로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한국적 상황에서 성경 번역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동안 외면당해 왔기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한다. 판소리와 관련해서 성경 번역을 생각한다면 고(故) 박동진 명창(1916-2003)의 『예수전』을 들 수 있다. 박동진 명창의 『예수전』은 박동진 명창이 직접 작곡한 창작 판소리로서 1972년도에 발표된[15] 작품이다. 이것은 1부 구주탄생, 2부 갈릴리의 봄, 그리고 3부 주님 고난과 부활 등 완창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대작이다.[16] 이 곡은 원래 기독교방송국의 조향록 목사와 극작가인 고 주태익 씨가 대본을 가지고 박동진 명창에게 부탁한 제안을 받아들여 박동진 명창이 직접 사

13) 예를 들면 코랄 10번에서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회개해야 할 자는 바로 나인데, 지옥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시려고 당신께서 당하신 매임과 채찍질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는데!"라고 말한다 (Johann Sebastian Bach, *St. Matthew Passion BWV* 244, Klavierauszug and Vocal Score by Alfred Durr [NY: Barenreiter-Vergag Karl Votterle GmbH & Co., 1974], 47).

14) 바흐는 상당히 루터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이데올로기가 이 수난곡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15) 이 작품이 창작된 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 SKC판 해설서는 1969년으로 이 작품의 탄생을 말하고, 강윤정은 1970년 이후 3년간으로 그 시기를 잡는다(『박동진 판소리 창본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4, 19). 이것은 박동진의 회고를 근거로 한 것이다("내 인생 소리에 싣고: (20) '판소리 전도사'", 중앙일보 2000년 7월 19일자). 이에 대해 이유진은 조향록 목사의 회고록을 근거로 1969-197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창작판소리 <예수전> 연구: 창작 경위, 작법, 보급과 전승" 58회 판소리 학술대회 자료집, 126-141, 131).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홈페이지(www.parkdongjin.com)의 연대기에서는 1972년도 창작 발표를 제시한다.

16) 현재 이 작품은 2시간 정도의 분량인 1부와 3부만 남아있고, 2부는 실전된 상태이다. 김양숙 전수자에 따르면 갈리리의 봄 가운데는 산상수훈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나 그 내용과 곡조는 전수되지 못하였다.

설을 붙여 만든 곡이다.[17]

이 작품은 1곡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곡인 "예수, 부활하심"으로 마무리되는 곡으로서, 박동진 명창은 마태복음에 국한하여 예수의 일대기를 그렸다고 말한다.[18] 그러나 실제로 이 곡의 사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여 디아테사론(*diatessaron*)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들 수가 없어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인 것은 누가복음에서 가져왔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모두 제시하여 각각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집트 피난과 헤롯의 학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사역 시작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의 시험과 사역의 첫 선포는 마가복음에서 왔다.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가져왔다.

『예수전』은 신약성서 가운데 복음서를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적 공연 텍스트로 번역을 한 것으로서,[19] 전통적인 한국의 공연 음악의 틀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 작품은 김기형이 잘 지적하듯이, 한국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두드러지는데,[20] 한국인을 염두에 둔 청중들의 이해를 위해 첫 곡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제 태조 온조 대왕이 도읍을 한산에 옮겨놓고 한강 서북쪽에다가 성을 쌓던 그때이라."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곳곳에서 한국적 풍토와 비교하는 아니리를 통해 청중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번역 기본 언어로 사용된 욕설 섞인 전라도 사투리는 이러한 토착적 번역 색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전통 한국의 예술 양식인데, 이런 틀로 성서를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용자 중심적인 번역 행위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수용자와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박동진의 판소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

17) 김기형은 어느 극작가(주태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사설을 써서 준 것으로 말하는데 ("창작 판소리 사설의 표현 특질과 주제 의식" 「판소리연구」 5집(1994), 101-122[105]), 박동진 명창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곡은 본인이 대본을 읽고 난 후 자신이 직접 사설을 만들고 작곡을 한 작품이다("내 인생 소리에 싣고: (19) '판소리 예수전'", 중앙일보 2000년 7월 18일자). 1988년도에 제작된 SKC 판(박동진 소리, 주봉신 북) 서문에서 박동진은 주태익이 사설을 작사해서 자신이 그것에 작곡을 했다고 언급하지만, 2000년 증언에서는 자신이 사설을 붙였다고 하며, 박동진 명창으로부터 1991년에 『예수전』을 전수받은 김양숙 전수자도 2008년 12월에 있었던 나와의 전화 대담을 통해서 박동진 명창이 주태익의 대본을 바탕으로 직접 사설을 만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8) 박동진, "박동진 판소리 예수전", 서초국악 포럼 시리즈 1 (서초국악포럼, 2006; 1st ed. SKC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 <예수전>, SKCD-K-0254:2CD, 1988), 서문.

19) 판소리는 바흐의 수난곡과 같이 단순한 성악곡이 아니라 아니리와 발림, 추임새 등을 통해 관객, 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악극이기에 단순히 음악이라고 보는 것보다 음악적 공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김기형, "창작 판소리", 111-112.

아볼 수 있다.

> 판소리 무대에 서면 우선 관객을 웃기고 볼 일이다. 파안대소하면서 웃음보를 터뜨려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소리에 서서히 빠져들기 때문이다. [중략] 판소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너름새, 고수와 관객의 추임새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판소리를 레코드판이나 CD로 듣는 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다. [중략] 나는 판소리의 생명은 현장성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기분 내키면 사설도 과감히 고쳐 부른다. 한문 투도 요즘 말로 고치고 유행어도 가끔 집어넣는다. 관객의 숫자나 수준, 분위기에 따라 사설이 달라지기 일쑤다. 그래서 가끔 옛날식으로 "어느 소리 할까요", "뭐하면 좋겠소" 하고 물어본다. [중략] 판소리도 듣고 싶어야 들리는 법이다.[21]

지면의 제약 상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지만, 박동진 명창은『예수전』이외에도『팔려간 요셉』(1975),『모세전』[22] 등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예들이 성경을 판소리라는 음악적 공연의 양식으로 번역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영화와 성경 번역

영화는 비교적 우리들에게 친숙한 매체 텍스트이다. 영화 매체를 통한 성서 번역은 그 원천 모델을 1634년 바바리아(Bavaria)에서 열린 오베람머가우 수난극(Oberammergau Passion Play)으로 삼는다. 예수의 영화는 수난극을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현존하지는 않지만 *La Passion* (Lear, 1897), 보헤미아 호리츠(Horitz)에서 제작된 *Passion Play*(1897; 동년 11월 22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상영됨), 에덴 뮤제(Eden Musee)에서 상영된 20분짜리 무성영화 *Passion Play of Oberammergau* (1898) 등이 있다.[23] 이처럼 초창기 무성 영화는 성서 이야기 가운데 수난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 축적이 되면서 보다 장관을 이루는 대작들이 제작되었으며 그 예가『쿼바디스』(마빈 르로이, 1951),『성의』(헨리 코스터, 1953),『벤허』(윌리엄 와일러, 1959),『왕중왕』(니콜라스 레이, 1961),『위대한 생애』(조지 스티븐스, 1965) 등이 있다.

영화 역사 100여 년 동안 제작된 기독교 관련 영화들은 크게 (1) 성서를 영화로

---

21) 박동진, "내 인생 소리에 싣고: (21) '나는 광대로소이다'", 중앙일보 2000년 7월 21일자.

22) 이 두 작품의 사설은 박동진의 필사 기록으로 남아있으나 김양숙에 따르면 그 곡조는 지금 실전(失傳)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3) W. Barnes Tatum, *Jesus at the Movies* (CA: Polebridge Press, 1997), 2-5.

풀어낸 것, (2) 성서적 주제들을 차용하거나 이용하여 만든 것, (3) 기독교적 주제들을 반영하는 영화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은배』(빅터 사빌, 1955), 『콘스탄틴 대왕』(R.D. 프리처, 1961), 『미션』(롤랑 조페, 1986),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1977),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1977) 등과 같은 작품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전설이나 간증 등 신앙 증진을 위한 종교영화이다. 두 번째 분류는 성서에서 유추한 부분이나 일화를 부분적으로 가져온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쿼바디스』, 『성의』, 『벤허』 등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영화들은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므로 기호간 번역으로서 성서 번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세실 드 밀(Cecil B. Demille)의 『왕중왕』(1927)이나 니콜라스 레이의 『왕중왕』(1961), 『위대한 생애』 등이 복음서들을 영화로 풀어낸(representation) 기호간 번역에 해당한다.

성서 영화 가운데서 눈여겨 볼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바로 『갓스펠』(데이빗 그린, 1973),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노만 주이슨, 1973)이다. 1960년대 이전의 영화들은 종교계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영화들이 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성서 영화의 구성도 역사적 정확성에 관심을 많이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서 영화들은 시대적 고민들을 담아내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이 바로 그 예이다. 『갓스펠』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모두 예수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서 디아테사론적이기는 하지만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을 영상 매체로 번역하긴 했지만 상황화(contextualization)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갓스펠』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 수난, 그리고 부활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은 1970년대 히피들이고 예수 역시 수퍼맨 복장을 하고 광대 분장을 했고, 곳곳에서 현대적 의미로 마태복음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24]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예수 수난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마가복음에 대한 매체 번역으로 볼 수 있다.[25] 이 작품 역시 1970년대 히피들의 고민을 히피

24) 이 영화는 산상수훈을 담고 있고 마지막 부활 이후의 장면도 마태복음 28장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의 기호적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단, 중간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다루는 비유를 전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대한 비유의 결론과 달리 두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다.

25) 테이텀(W. Barnes Tatum)은 이 영화가 요한복음과 가깝다고 하지만(Jesus at the Movies, 119) 그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마가복음에 대한 주장을 보려면 Jayhoon Yang, “Morman Jewison and Melvyn Bragg's Jesus in 1973 and Mark's Gospel”, *Journal of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17 (2007)을 보라. (http://www.usask.ca/relst/jrpc/art17-jewison

들의 표현 양식을 통하여 복음서를 매체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작품들은 기존의 예수 영화에 대한 틀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영상 매체와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성서공회의 성서와 미디어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cripture & Media)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센터에서는 1991년부터 성경 텍스트를 영화화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26] 이 작품들은 10분 가량 분량의 단편영화들로서 배우들이 대사를 하지 않고 내레이터가 성경의 해당 본문을 읽어주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영화들과는 달리 이 매체 성경은 성경본문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화면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문자 텍스트에서 다른 문자 텍스트로의 번역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매체 번역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전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넣고 어느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선택하고, 배우들의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사는 어떤 속도와 어떤 음역(音域)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27] 성경의 본문을 어떤 모습으로 전달할 것인지,[28] 배우들의 행동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29] 음향, 카메라의 조명이나 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30] 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문자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 위에서 예로 제시한 폰트 크기, 모양, 색깔 등을 통한 번역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bragg 1973.HTML)

26) Out of the Tombs(1991, 막 5:1-20); A Father & Two Sons(1992, 눅 15:11-32); The Visit(1993, 눅 1:39-56); The Neighbor(1998, 눅 10:25-37); The Resurrection(2000, 요 20:1-31).

27) 예를 들면 이 두 작품들은 모두 뮤지컬과 락 오페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이한 대사와 노랫말 대사가 섞여 있다.

28) 예를 들면, 『갓스펠』에서 탕자에 대한 비유 장면은 무성영화 상영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찰흙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데렉 헤이스(Derek Hayes)의 The Miracle Maker (2000)의 경우 마태복음 7장 24-29절을 2차원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여 액자 속의 액자 기법(vignette)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29) 예를 들면 『갓스펠』에서 "Day by Day"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배우들은 엉망진창이었던 도시 뒷골목을 새롭게 페인트칠하고 화단도 가꾸고, 폐차장의 차가 새 차로 변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자 텍스트가 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30) 영화에서 조명이나 카메라의 각도 설정이 메시지의 의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프랑코 제피렐리의 『나사렛 예수』(1977)와 노만 주이슨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카메라 각도 (Cf. Goodacre, M. "Do You Think You're What They Say You Are?: Reflections on Jesus Christ Superstar", *Journal of Religion and Film* 3:2 (1999). http://avalon.unomaha.edu/jrf/jesuscss2.htm.)에 따른 기독론의 대조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7. 2차원 이미지 매체와 성서 번역

2차원적 이미지 매체 가운데서 성서의 기호적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만화와 성경 "책" 디자인이다. 만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만화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 "책" 디자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이로 만들어진 성경책과 더불어서 인터넷 성경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책까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성경 만화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이미 시쿠의『망가 바이블』(2007)에 대하여「성경원문연구」에서 자세히 분석한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후자의 매체 번역에 대해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기존에 국내에 나와 소개된 만화 성경은 에티엔느 달러의『성경만화』시리즈나 1990년대 후반에 김수연이 내놓은『만화성경』시리즈, 클로드 몰리테르니와 헤스스 블라스코가 1983년에 만들어서『교양으로 읽는 만화성경』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성경 등이 있다. 기존의 만화 성경은 저학년들을 위한 부드러운 선, 색상과 이미지를 사용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후지코 후지오의『도라에몽』시리즈 류의 성경만화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몇 개의 성경만화처럼 실사(實寫) 위주의 고학년이나 청소년 이상의 독자를 위한 성경만화가 주류를 이루었었다.[31]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성경만화가 들어섰는데 시쿠의 망가 바이블(*The Manga Bible*), 한국계 작가인 이영신과 황정선 등이 미국 존더반 출판사를 통해 만든 망가 바이블(*Manga Bible*), 그리고 틴데일 하우스의 망가 메시아(*Manga Messiah*) 등의 시리즈이다.[32] 이러한 새로운 작품들은 기존의 그림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나서 무협지 스타일이나 일본의 망가, 한국의 만화에서 사용하는 선을 쓰고 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의 성경 만화는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성경은 따분하고 어렵다는 전형적인 선입관을 깨뜨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이런 매체의 성경과는 달리, 최근에는 새로운 양식을

31)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162.

32) 시쿠의 망가 바이블은 *The Manga Bible - NT Extreme* (2007. 2)과 *The Manga Bible NT-Raw* (2007. 2)가 있고, 그 후에 나온 The Manga Bible: Raw (2007, 7), The Manga Bible: Extreme (2007, 7), 그리고 *The Manga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2008, 1)이 있다. 이영신과 황정선 등이 출간하는 망가 바이블 시리즈는 *Names, Games, and the Long Road Trip: Genesis-Exodus* (2007, 8), *Walls, Brawls, and the Great Rebellion: Numbers-Joshua-Judges-Ruth* (2007, 8), *Fights, Flights and the Chosen Ones: First-Second Samuel* (2008, 2), *Traitors, Kings, and the Big Break: First Kings- Second Kings* (2008, 5), 그리고 *Prophets, Captives and the Kingdom Rebuilt: Jonah- Esther-Ezekiel-Daniel-Job- Ezra/Nehemiah-Psalms* (2008, 8) 등이 있다. 그리고 틴데일 하우스에서 출간한 것으로『망가 메시아』(2007.7)가 있다.

가지고 출간되는 성경들이 있는데 종이로 이루어진 성경으로는 2007년에 출간된 *Bible Illuminated*이다. 스웨덴의 한 출판사에서 제작한 이 성경은 스웨덴어로는 신,구약(2007)이 영어로는 신약(2008)이 출간되었는데, 독특한 것은 이 성경책이 무크(mook)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커피숍 테이블에서나 찾아볼 만한 것으로 디자인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텍스트 자체는 1992년도 미국성서공회의 Good News Translation을 사용하여 기존의 성경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이 독특한 이유는 사진 디자인과 레이아웃의 차별성 때문이다.

이 책의 표지는 약간 공포감 흐르는 분위기의 푸르스름한 빛깔의 얼굴에 검은색 짙은 마스카라를 한 사람이 등장한다. 책 내부는 현대적 이미지가 등장한다.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성가족 인형 세트 사진이 들어있어서 마치 상품 광고 선전 같은 느낌을 준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로마서 8장 24절은 육지를 찾아 필사적으로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있는 북극곰의 사진과 연결시켰다.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소망에 대한 느낌을 잘 전달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문제도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점잖은 사람들 눈에는 다소 불량스러워 보이는 도시 뒷골목 힙합을 하는 흑인들과 연결된다. 로마서 14장의 음식에 대한 부분은 한 여인이 눈을 뜬 채 구워져서 목을 드리우고 있는 새 요리를 잡아 뜯는 다소 거북스런 사진과 연결시키고, 이 외에도 쓰레기 수렁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관총으로 무장을 한 군인, 코카콜라를 마시는 소녀, 유명 연예인 등 오늘날 현대 도시민들이 익숙하게 접하는 사진들을 실었다. 이 책의 레이아웃도 독특하다. 장절의 구분이나 표시가 없고, 서너 컬럼의 포맷과 중간에 몇 구절을 문단 박스로 뽑아서 제시하여 일반 잡지와 같은 분위기를 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쇠더베르크(Dag Söderberg)는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테이블에서, 지하철에서 읽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경이 오늘날 "나와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시대와 상관이 있는가?" 질문할 때 바로 이 책이 그러하다고 말한다.[33] 이러한 목적이 들어맞았는지 스웨덴성서공회는 "일 년에 6만부 판매되는 성경이 2007년 부활절 기간에 *Bible Illuminated* 출간 이후로 50%나 판매가 증가했다"고 전한다.[34] 이것은 오늘날 성경 번역에 있어서 기호간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2차원 이미지를 사용한 성경의 또 하나는 그림책 성경이다. 그림책 성경은 말풍선을 넣는 만화성경과 달리 사진을 넣고 거기에 성경 텍스트를 삽입한다. 전통적인 어린이 그림 성경은 한쪽 면에 성경의 이야기 텍스트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33) http://www.illuminatedworld.com/about/mission/

34) *Los Angeles Times,* December 22, 2008.

그 이야기와 연관된 고전적인 그림을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성경책이 그다지 활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2-5세 연령에 해당하는 유아들을 위한 성경의 경우 무척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2000년도에 「성경원문연구」 6호를 통해서 어린이 성경을 위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성경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성서공회, 아가페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등에서 어린이 성경이라고 내놓긴 했지만, 애니 발라톤의 그림을 넣든지 약간 큰 글씨로 조판을 했든지, 혹은 성경책 크기를 약간 줄여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에 좋게 했다는 수준일 뿐 텍스트 자체는 『개역개정판』과 같은 기존의 텍스트를 차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어린이 성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 내적(intra-lingual) 번역이다. 아무리 그림이 있고 귀여운 캐릭터를 넣는다 해도 텍스트가 어른들을 위한 것이면 그것을 어린이 성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림 성경책은 텍스트 자체도 언어 내적 번역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림 성경의 경우 대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 되는데, 최근에 나온 성경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레고 성경이다. 브렌든 파웰 스미스(B.P. Smith)가 레고 장난감으로 성경 이야기 장면을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래에 해당 성경구절을 넣어 만든 것이다. 기존의 그림책과 별다를 바 없으며 도리어 그림이 아닌 조립이므로 표현의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35]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텍스트는 초기에 『새 예루살렘 성경』(New Jerusalem Bible)을 사용했으나 후에 스미스 본인이 직접 텍스트를 만들어 쓰고 있다.[36] 성경 텍스트에서 다소 벗어난 본인의 창작은 회색으로 처리하여 구분하였고,[37] 성경 본문에 많이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성경은 다른 어린이 성경들과 달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체 노출(N), 성적 묘사(S), 신체적 폭력성(V), 언어적 폭력성(C) 등을 미리 제시하며, 이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8. 사이버 매체와 성경 번역

35) 스미스, 유영소 역, 『크리스마스 이야기』(서울: 숲, 2005)를 세 살과 다섯 살 된 내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아이들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18-19쪽)에서 표현된 성령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다!"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이미지 성경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36) http://www.thebricktestament.com/faq/index.html

37) 인터넷 판에서는 그러하나 출판된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없앴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을 많이 찾는 시대이며, 따라서 매체를 통한 성경번역의 과제에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이버 매체를 통한 성경번역이라고 하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보는 동영상물(UCC나 위에서 언급한 미국성서공회의 프로젝트가 좋은 예이다), 2차원적 매체(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레고성경), 상호작용(interactive)이 가능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마당 사이트나 게임 프로그램)[38] 등이 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성경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기에 간략히 몇 가지 추가적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이버 매체의 장점은 높은 접근성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제의 어려움이다. UCC의 발달로 수많은 영상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돌아다니므로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매체를 통한 성경번역에 있어서도 왜곡 및 잘못된 번역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미국성서공회의 프로젝트와 같이 공신력 있는 매체 번역물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마당 사이트나 미국성서공회 프로젝트 사이트[39]가 그다지 활발하거나 널리 홍보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마당 사이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상호작용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성경에서도 오프라인 성경이 가지는 한계인 하이퍼링크의 활성화를 통해 사진이나 관련 동영상, 관련 성구 등 각종 정보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면 매체 성경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9.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서 번역: 기준과 문제점

이상과 같이 기호간 번역으로서 문화적 산물을 통한 매체 번역의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번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와 이런 번역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성경원문연구」 23호를 통하여 이미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략히 넘어가고, 대신 문제점에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 위에서도 곳곳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등성이다. 동등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역이거나 새로운 창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산물을 통한 기호간 성경번

38)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마당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는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167-168을 참고하라.

39) http://www.newmediabible.org.

역에 있어서도 동등성은 중요하다.

이러한 기호간 번역물들을 비평할 때 신학적, 문학적, 예술적, 역사적, 그리고 수용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1) 그 번역물이 ST(Source Text)와 신학적으로 동등성을 이루는가? (2) ST와 어느 정도 문학적 차원의 병행을 이루는가? (3) 예술적으로 얼마나 독창성과 독자/청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가? (4) 역사적 정확성은 어떠한가? (5) 그리고 얼마나 번역물의 소비자인 현재 독자/청중들의 수용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40]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와 넷째 질문은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동등성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등성이라는 것을 나이다가 말하는 역동적 동등성이라는 차원에서 본 것일 수 있다.

이런 기호간 성경번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번역의 큰장점이자 주의해야 할 점은 번역자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언어 간 번역에서도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호간 번역에서는 기호체계가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크다. 예를 들어, θεός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기호간 번역에서는 빛이나 하늘 풍경[41] 혹은 다른 사물, 음향 효과, 카메라 각도 등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로 번역된 텍스트에 대한 비평이 있듯이 기호간 번역으로 된 성경번역에서도 비평의 작업은 있어야 한다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번역물들을 비평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산물이라고 할 경우 가사 설정, 템포, 배역, 박자, 조편성 등에 대한 분석 등 메타적 도구를 통한 성서 번역을 비평을 할 수 있다. 판소리라고 한다면 사설에 대한 분석 즉, 어느 성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하는가? 사설에서 작곡자 혹은 소리꾼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아니리와 추임새 등에 대한 분석)? 어떤 조를 선택하여 번역하는가(우조, 계면조 등)? 장단의 구성 및 선택은 어떠한가(진양조, 중모리, 혹은 자진모리 등)? 비음성적 요소(발림 등)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다.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배역설정, 대사, 효과음향, 로케이션, 구성, 조명, 카메라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2차원적 매체에서도 어떻게 텍스트를 표현(번역)해 내는가?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들은 동등성의 문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

40) 이 가운데 하나로서 위에서 지적한 어린이 성경을 위한 한국 어린이들의 어휘력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41) 그 대표적인 예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Jayhoon Yang, “Oh, Father! What a ‘Fool for Love’ Thou Art! - Reading Luke 15.11-32 through the Secret Sunshine”, J. C. Exum, ed., *The Cultural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forthcoming).

이어지고,[42] 이것은 궁극적으로 번역자/예술가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점은 문화적 산물의 산만효과(distraction)라는 부작용이다. 그 쉬운 예가 CCM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CCM의 문제점은 그 음악적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 보다는 감미로운 멜로디나 화려한 음악적 기교 등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기껏 찬양을 불렀지만 부르고 난 뒤에 그 노래의 메시지나 가사는 기억에 남지 않고 멋진 음악만 남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물론 모든 CCM이 성경 텍스트를 가사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문화적 산물을 통한 기호간 성경 번역물에 있어서도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이것은 기호간 번역이 가지는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도 되며, 기호간 성경 번역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10. 결론

이상과 같이 기호간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경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들과 그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것을 번역의 영역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언어 간 번역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기호간 번역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기술과 문명은 더욱 발달하고 사람들은 더욱 그것에 익숙할 것인데, 책보다는 영화를 즐겨보는 이 시대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접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접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린 자세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 짧고 부족한 글이 이런 과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보다 앞서 나가는 데 이르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

42) 번역자/예술가의 표현/번역에 따라 메시지는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프로코피에프는 총 10개 장면, 30여분짜리 발레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Op. 46). 그런데 여기에는 탕자의 가출과 고생과 귀가까지만 담겨있고, 가출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장면이 6개이며, 맏아들에 대한 장면이 없는데, 이럴 경우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요어>(Keywords)
문화, 성경번역, 기호간 번역, 방법론, 예술.
Culture, Bible Translation, Inter-Semiotic Bible Translation, Art.

<참고문헌>(References)

김기형, “창작판소리 사설의 표현 특질과 주제의식”, 「판소리연구」 5집(1994), 101-122.

박동진, “내 인생 소리에 싣고: (19) ‘판소리 예수전’”, 「중앙일보」 2000. 7. 18.

박동진, “내 인생 소리에 싣고: (21) ‘나는 광대로소이다’”, 「중앙일보」 2000. 7. 21.

박동진, “박동진 판소리 예수전”, 서초국악 포럼 시리즈 1, 서초국악포럼, 2006; 1st ed. SKC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 <예수전>, SKCD-K-0254:2CD, 1988.

박용삼, 『번역학 - 역사와 이론』,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3.

스미스, 브렌든 파웰, 『크리스마스 이야기』, 유영소 역, (서울: 숲, 2005).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46-171.

이유진, “창작판소리 <예수전> 연구: 창작 경위, 작법, 보급과 전승”, 58회 판소리 학술대회 자료집(2008. 5. 10, 전북대학교), 126-141.

최웅환, “미디어 시대, 문자 문화의 반란”, 김영순 (편), 『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 서울: 논형, 2004, 147-177.

하지슨, R.,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성경의 번역과 전달”, 「성경원문연구」 15 (2004), 154-243.

Bach, Johann Sebastian, *St. Matthew Passion BWV 244*, Klavierauszug and Vocal Score by Alfred Durr, NY: Barenreiter-Vergag Karl Votterle GmbH & Co., 1974.

Catford, J. C.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Goodacre, M. “Do You Think You're What They Say You Are?: Reflections on *Jesus Christ Superstar*”, *Journal of Religion and Film* 3, 2 (1999).

Jakobson, Roma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

Nida, E. A. and C.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1982.

Nida, E. A.,『언어간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송태효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Snell-Hornby, Mary,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Philadelphia: J. Benjamins, 1995[1988].

Tatum, W. Barnes, *Jesus at the Movies*, CA: Polebridge Press, 1997.

Yang, Jayhoon and Sung Baek, "Orality and Textuality in the Biblical Narrative and its Application to Bible Teaching",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 (2005), 159-189.

Yang, Jayhoon, "Morman Jewison and Melvyn Bragg's Jesus in 1973 and Mark's Gospel" *Journal of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17 (2007).

Yang, Jayhoon, "Oh, Father! What a 'Fool for Love' Thou Art! - Reading Luke 15.11-32 through the *Secret Sunshine*", J. C. Exum, ed., *The Cultural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forthcoming.

<Abstract>

Inter-Semiotic Translation and Bible Translation:

Searching for Various Models of Inter-Semiotic Bible Translation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act of translation may be roughly and loosely defined as an act of transferring a text of a language to another one in a corresponding language with equivalence. This paper begins with redefining this understanding by asking and answering the questions of (1) what does “a language” and “another one” mean? (2) what does a “text” mean? and (3) what does “an act of transferring” mean? The traditional concept of translation is focused on the different languages with regard to the first question, that is as an inter-lingual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ct of translation is not only the matter of between different language systems but within the same one, as Jakobson puts it as the ‘intra-lingual’ level.

The concept of “text” should be reconsidered in this post-modern society. It is more than letters on papers; it includes various kinds of vehicles for representing certain meanings, i.e. cultural productions. Therefore, this paper follows Jakobson's theory of “inter-semiotic” translation. This paper suggests a few models of inter-semiotic translation that may be applied to the Bible translation. It firstly suggests musical production as an example of inter-semiotic Bible translation, providing J. S. Bach's *Passion* works. It also deals with *pansori*, a Korean traditional musical performance. This paper moves on to the visual productions such as film and UCC. It continues to deal with visual artistic productions on the paper, the manga Bibles, *Bible Illuminated* a mook style bible, Bible for children, picture Bible such as *the Lego Bible*, and finally the Bible on the cyber space.

Examining a few models of inter-semiotic Bible translation, it briefly deals with some criteria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oducing and criticizing such modes of Bible translation: theological, literary, artistic, historical aspects, and acceptability. Lastly, it points out the problem of ideology that always be examined in making and evaluating the inter-linguistic, and especially, intra-linguistic and inter-semiotic translation productions, which is eventually related to the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above of “an act of transferring”.